

역사인식이 돋보이는 린다 존스의 기증 사료

이창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2003년 9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에서 추진한 해외 민주인사 초청 한마당 행사에 린다 존스와 그녀의 가족들이 참여했다. 그들 각각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짐 외에 모두 몇 개씩의 큰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한국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대부분 영문 자료)가 들어 있었다. 항공 화물로 부쳐도 되는 것을 린다 존스와 그의 가족들은 번거롭게 가져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볼 수 없던 사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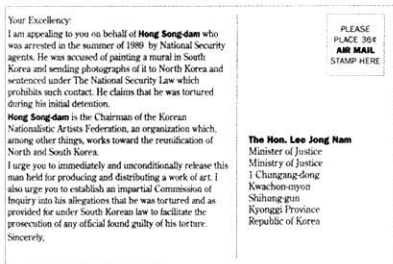
린다 존스는 1972년 10월부터 약 2년 간 남편 데이비드 존스 목사와 함께 미국 연합 장로회에서 한국 선교 프론티어 인턴으로 파견되어 한국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한국기독교학생연맹(KSCF)과 영등포·청주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일하며 미국에 돌아간 뒤에도 19년 동안 '아시아 인권 교회위원회(CCHRA)'에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따라서 그의 기증 사료에는 한국 뿐 아니라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의 민주화운동 사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증사료의 양과 질로 보건대 린다 존스가 기증한 것들은 별도의 연구·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양을 보면 10상자(1상자 : 39×55×26cm) 분량으로 문서가 약 40,000쪽, 슬라이드 필름 500여 컷, 사진 200여 장, 음성 테이프 11개, 포스터 등을 포함한 수십 종의 물건 사료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내용을 보건대 1970년대를 중심으로 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의 자료들이며, 국내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필름 슬라이드 필름에는 1970년대 서울지역의 빈민지역, 공단 주변의 모습, 영등포 산업선교회 및 청주 산업선교회의 활동 모습 등이 담겨 있고 특히 '고문은 올림픽 종목이 아닙니다' 라는 대형 포스터가 눈에 띄는데, 이것은

사업회의 사업인 전시회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생각한다. 방대한 문서 사료 40,000쪽을 일일이 살펴 보고 글을 쓴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그 중 극히



화가 홍성삼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영문 엽서

일부분만 소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못내 아쉽다. 추후 사업회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후에 전문가들의 상세한 연구 결과를 기다려야만 할 것 같다.

10개의 사료 상자 중 두 번째 상자 속의 서류철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사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박정희에게 보낸 영문 편지도

1. 그림 엽서 2종류 6장

첫 번째 엽서 : 한 면에는 김근태 씨 얼굴이 있고, 다른 면에는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영문의 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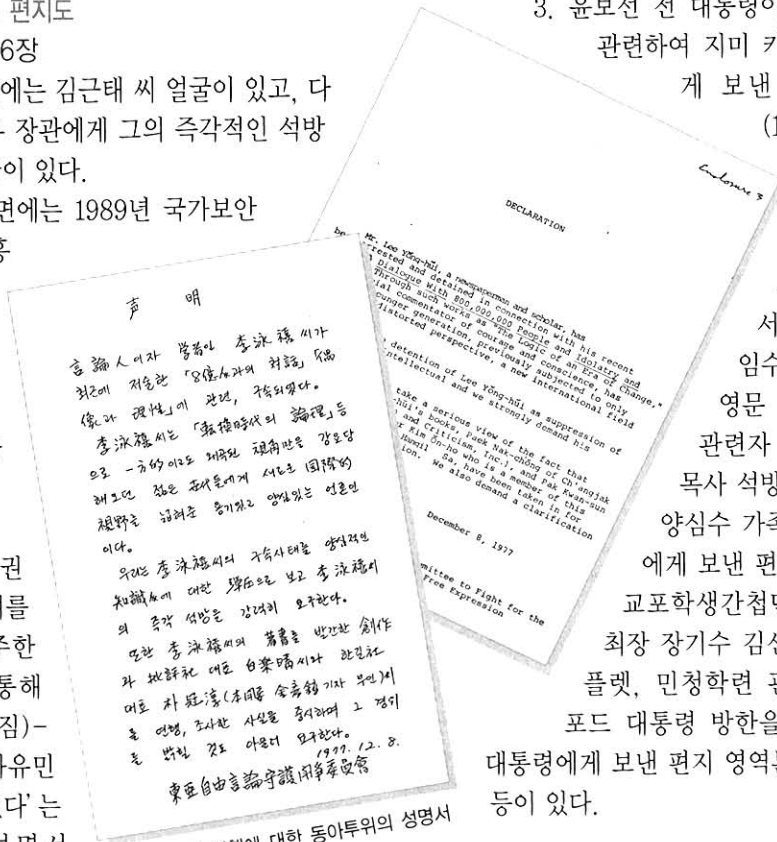
두 번째 엽서 : 한 면에는 1989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화가 홍성담 씨 얼굴이 있고 다른 면에는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영문 편지글이 있다.

2. 당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영문편지(주한 미대사 슈나이더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보내짐)-유신 독재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정 일형 의원의 성명서(1977.3.24), 리영희 선생 연행에 대한 조선과 및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성명서 및 영역 성명서(1977. 12. 3) 1970년대 중·후반 긴급조치 9호 등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구속된 학생, 지식인, 종교인, 재야인사들의 각종 인명록 및 사건 개요, 당시 주요 민주화운동 사건 등에서 발표된 선언문의 영역본 등, 공판 기

록에 대한 영역본, 양심수 가족들의 증언에 대한 영문 자료, 전 세계 어머니와 아내들에게 보내는 편지, 1970년대 재미 교포 학생 간첩 사건 관련자 인명록,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영문 신문 스크랩 등이 있다.

3. 윤보선 전 대통령이 한국의 상황과 관련하여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보낸 6쪽짜리 편지

(1977.5. 19), 강기훈의 항소 이유서 및 석방 공동위원회의 활동 등의 문서, 뉴욕에서 나온 영문 팜플렛, 남민전 관련자 인명록, 홍근수 목사 석방을 위한 자료집, 양심수 가족들이 린다 존스에게 보낸 편지, 1975년 제일교포학생간첩단 사건 자료집, 최장 장기수 김선명씨에 대한 팜플렛, 민청학련 관련 어머니들이 포드 대통령 방한을 항의하여 포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영역본(1974. 10. 28) 등이 있다.



리영희 선생 연행에 대한 동아투위의 성명서 및 영역 성명서

4. 마지막으로 꼭 소개해야 할 특이한 자료가 하나 발견되었다. 그 자료의 제목은 <석방학생 현황 보고서> (The Report of the Present Situation of Released Students)로 정확한 제작년도는 알 수 없으나 그 자료 옆의 메모를 봐서 1976년 11월 경으로 추정된다. 1974년 체포되어 1975년 2월 15일 석방된 민청학련 관련자 108명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8쪽 짜리의

이달의 사료

보고서로서 비밀 문서(CONFIDENTIAL)로 분류되어 있다.

석방학생들의 생활을 낱낱이 기록

서울대생 31명, 연세대생 12명, 전남대생 15명, KSCF 16명, 경북대생 8명, 서강대생 8명, 성균관대 4명, 부산대 3명, 동국대 2명, 강원대 1명, 서울의대 3명, 한신대 2명, 단국대 1명 한양대 2명 등 모두 108명을 대학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형량, 현재 상황, 가정의 경제 상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는 조사 대상 108명 중 91명의 조건에 대한 통계 수치를 내고 있다.

민청학련 관련자인 몇몇 사업회 임직원도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나OO : 형량 20년, 1976년 1월 다시 체포됨, 극도의 금전적 궁핍, 부모 병환
- 김OO : 형량 15년, 냉동기술 익힘, 형제와 동거, 집안 빈궁
- 김OO : 형량 12년, 서울법대 졸, 한신대 퇴학, 부업으로 집안 생계 보조, 신학 공부 계속하고 싶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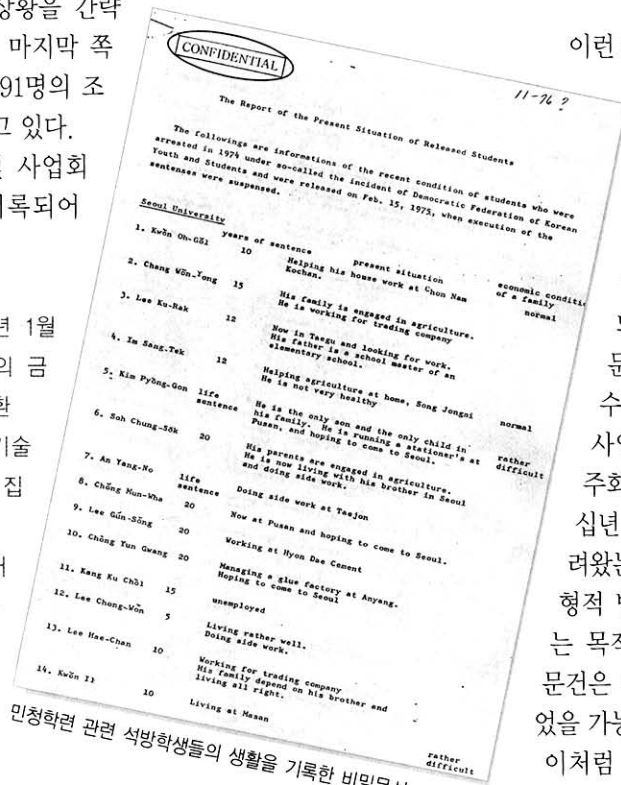
통계수치를 보면,

- I. 91명 중에서
 1. 직장인 7명(7.7%)
 2. 임시직(교회 또는 연구소 관련) 8명(8.8%)
 3. 부업 16명(17.6%)
 4. 가사 7명(7.7%)

5. 농업 8명(8.8%)
6. 실업(그냥 집에 있음) 39명
7. 다시 체포 5명

II. 집안의 경제 상황

1. 잘 산다 9명
2. 보통 15명
3. 빈궁 50명
4. 극히 빈궁 18명



민청학련 관련 석방학생들의 생활을 기록한 비밀문서

이런 자료는 현재 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사회(양상)조사 사업의 간략한 형태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당시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고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왜 비밀 문서로 취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회의 사회조사사업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이 수십년 동안 어떤 삶의 궤적을 그려왔는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균형적 발전 등을 조명해보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당시에 제작된 이 문건은 아마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겠다.

이처럼 린다 존스의 기증 사료 중 일부만 보더라도 그가 간직해 온 기증사료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그 양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엽서 한 장, 다량으로 복사된 인쇄물 하나도 꼼꼼히 챙기고 모아 놓은 린다 존스의 '역사 인식'이 새삼 새롭게 보이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자료관(Archives) 및 기념관 건립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해외자료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